

[2024년 통계청 민생정책 100% 활용하기]

통계청, 신속한 지역경제 동향 파악을 위해 분기 지역내총생산(GRDP) 개발 추진

- GRDP 작성 주기를 분기로 단축하여 해당 분기 종료 후 3개월 내 공표
- 연간으로도 현행보다 9개월 앞서 속보 제공
- 신속한 지역경제 상황 파악 및 효과적 지역 정책 수립 등에 기여 기대

통계청(청장 이형일)은 지역소득 통계의 시의성과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분기 지역내총생산(GRDP) 개발을 추진한다.

GRDP, 곧 지역 GDP 통계는 지역경제 상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이나, 연간 주기로 작성되고 있어 지역 경제정책 수립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. 물론 산업생산이나 건설수주 등 지역 단위의 월별·분기별 지표가 있으나, 각각의 산업에 한정되어 있어 지역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 않았다.

이에, 통계청은 신속하고 종합적인 지역경제 동향 파악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기 GRDP 개발작업을 추진하고, 그 결과를 내년 6월에 공표할 예정이다.

이렇게 되면, 시도별 분기 성장률은 해당 분기 종료 후 90일 전후에 제공이 가능하며, 연간으로도 현행보다 9개월 먼저 속보를 제공할 수 있어 지역소득 통계에 대한 이용자들의 시의성 개선 수요를 상당 부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또한, 시계열의 축적과 함께 지역 경기국면(상승·하강 및 전환)의 신속한 진단도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경제에 대한 심층분석이나 효과적 지역경제 정책 수립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바, 그 주요 작업내용과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다.

□ 작업내용

먼저 관련 월간 동향통계나 시의성 높은 행정자료 등을 활용하여 지역별 분기 부가가치를 추계한다. 지역경제를 더욱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각 산업을 잘 대표하는 기초자료를 최대한 발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.

또한, 분기와 연간 통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기구에서 권고한 방법*에 따라 추계결과를 정제한다. 이를 통해 통계 이용자들이 이용 목적에 맞게 분기와 연간 통계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.

* 비례덴톤법(proportional Denton method) : 장주기(연간) 통계와 단주기(월간·분기) 통계를 일관성 있게 통합하는 기법의 하나로, 시계열의 단층을 최소화하고 경기의 흐름을 최대한 반영하는 장점이 있음

□ 추진일정

올해에는 내부적으로 분기 GRDP 시험 작성 및 검토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추계 정도를 개선하고, 2025년 상반기 중에 국가통계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후 6월에 개발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.

< 분기 GRDP 개발 추진일정 >		
2023년	2024년	2025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분기 GRDP 개발 계획 수립 • 분기 GRDP 과거계열 시험 작성 및 분석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'24년 분기 GRDP 시험 작성 및 분석 • 산업별 추계방법 정제·개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통위(경제분과) 상정 • '25년 1분기 GRDP 공표 ('25.6월 예정)

이형일 통계청장은 “이번 분기 GRDP 개발은 지역경제 실상을 더욱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수립 등에 기여하기 위한 것”이라며 “앞으로도 지역경제 통계를 지속적으로 개선·확충해 나갈 계획”이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경제통계국 소득통계과	책임자	과 장	정선경 (042-481-2206)
		담당자	사무관	임대환 (042-481-2338)